

정답과 해설

1. 주	한글의 창제 원리	04
2. 주	단어의 발음과 표기	12
3. 주	담화의 개념과 특성	21
	권말 정리 마무리 전략	27

정답과 해설

1주 한글의 창제 원리

1일 개념 돌파 전략 1 08~11쪽

01 문자, 한자 02 자주정신 03 발음 기관 04 (1) □ (2) ㅅ
05 ㅋ, ㄷ, ㅌ, ㅂ, ㅍ, ㅈ, ㅊ 06 ④ 07 ③ 08 땅 09 ②
10 ① 11 ① 12 ① 13 소리 14 ㉠, ㉡ 15 (1) 체계, 제
자(2) 모아쓰기, 실용

- 01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도 우리말은 있었으나,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문자 생활을 했다.
- 02 《훈민정음해례본》의 어제 서문 중 우리나라 말은 중국 말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난다.
- 03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 04 한글의 기본 자음자 중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ㄹ’은 입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05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에는 ‘ㅋ’, ‘ㆁ’, ‘ㄷ’, ‘ㅌ’, ‘ㅍ’, ‘ㅊ’, ‘ㅍ’, ‘ㅎ’이 있다.
- 06 두 개 이상의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하고, 두 개의 자음자를 세로로 잇대어 쓰는 것을 연서라고 한다. ④ ‘병’은 연서자이고, 나머지는 병서자이다.
- 07 한글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자음자 중에서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은 ‘ㅇ(옛이음)’, ‘ㆁ(반치음)’, ‘ㆁ(여린히음)’ 세 개이다.
- 08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천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
- 09 <보기>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제자 원리를 합성이라고 한다.
- 10 기본자, 초출자와 재출자 가운데 둘이나 세 글자를 서로 합하여 다양한 모음자를 만드는 제자 원리를 합용이라고 한다. ①은 합용, 나머지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

이다.

- 11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는데,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엮어서 ‘초성+중성’, 또는 ‘초성+중성+종성’으로 쓴다. 이때 초성과 중성은 모음자가 아닌 자음자로 표현한다.
- 12 《훈민정음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거기에 담긴 철학적 원리, 사용법 등을 자세히 기록한 책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자의 기원과 사용법을 해설한 책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자료실

《훈민정음해례본》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 낸 판각 원본.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서문(御製序文), 자음과 모음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例義),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 정인지 서(序)로 되어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보 정식 명칭은 ‘훈민정음’이다.

- 13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도 수많은 음절을 나타낼 수 있다.
- 14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반면, 영어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다양하게 발음된다. 또한 한글은 소리가 비슷한 글자는 그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을 통해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 15 (1) 한글은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모음 기본자끼리 합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체계적인 제자 원리 덕분에 글자 수에 제한이 있는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 전화 자판에도 거의 모든 글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한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실용적이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12~13쪽

01 ㉠ 자주정신 ㉡ 애민 정신 ㉢ 실용 정신 02 (1) □ (2) ㅅ
(3) ○ (4) ㄴ (5) ㄱ 03 (1) ·, |, - (2) ㄴ, ㅅ, ㅈ, ㅊ 04 오
른쪽, 아래쪽 05 ④ 06 ①

- 01 세종 대왕은 우리말이 중국 말과 다르니 한자가 아닌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백성들이 글을 몰라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는 애민 정신,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도록 하려는 실용 정신을 담아 한글을 창제했다.
- 02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03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모음 기본자인 ‘·, ㅡ, ㅣ’를 만들고,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ㅏ, ㅑ, ㅓ, ㅕ’를 만들었다. 여기에 모음 기본자를 한 번 더 합하여 ‘ㅗ, ㅛ, ㅜ, ㅠ’를 만들었다.
- 04 한글로 표기할 때 모음자는 그 모양에 따라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서 모아쓴다.
- 05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며,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글자끼리 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로 수많은 음절을 나타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②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의 수만큼 많은 글자가 필요하며, 한글보다 글자 수가 많다.
- ③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와 소리의 관계만으로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이지만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 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다.

- 06 제시된 표의 내용을 통해 한글 ‘ㅏ’는 [아]로만 발음하지만, 영어 알파벳 ‘a’는 단어에 따라 [어], [에], [에이]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영어 알파벳 ‘a’는 [어]와 [에], 그리고 [에이]로도 발음한다.
- ③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영어 알파벳은 그렇지 않다.

- ④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보다 발음을 기억하기 쉽다.
- ⑤ 글자 모양과 소리의 관계는 제시된 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1

14~15쪽

1 ④ 1-1 ⑤ 2 ②, ③ 2-1 ① 3 ① 3-1 ④ 3-2 ②
4 ③ 4-1 ⑤ 4-2 ㄷ, ㅌ

- 1 제시된 상황에는 문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글로 된 지식이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드러나 있다. 이처럼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글을 배우기 어려워서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1-1 한글 창제 이전에도 우리말은 있었으나,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문자 생활을 했다.
- 2 우리말이 중국 말과 다름을 인식하고 독창적인 우리의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고,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2-1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주정신을,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을 가엾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을, 모든 사람이 쉽게 익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ㅌ, ㄴ,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고, 그 외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
- 3-1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ㄷ’은 입 모양을, ‘ㅌ’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3-2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ㄷ, ㅌ, ㅅ, ㅇ’ 5개로, 각각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러한 제자 원리를 ‘상형’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④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ㄹ, ㅅ, ㅇ’ 5개이다.

⑤ 자음자 각각이 소릿값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자음자는 모음자와 결합해야 뜻과 소리를 가질 수 있다.

4 <보기>의 자음자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ㄱ’은 ‘ㄱ’에, ‘ㄷ, ㅌ’은 ‘ㄴ’에, ‘ㅈ, ㅊ’은 ‘ㅅ’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4-1 자음 기본자(ㄱ, ㄴ, ㄹ, ㅅ, ㅇ)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 외의 자음자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자음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나란히 붙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다. ‘ㅎ(여린히읃)’은 자음자 ‘ㅇ’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이다.

4-1 <보기>의 ‘ㄱ → ㅋ’에 나타난 자음자의 제자 원리는 가획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ㄴ’에 획을 더한 ‘ㄷ’이, 두 번째 빈칸에는 ‘ㅈ’에 획을 더한 ‘ㅊ’이 들어가야 한다.



2월 필수 체크 전략 2

16~19쪽

- 01 ⑤ 02 실용 정신 03 ⑤ 04 ④ 05 ②, ③ 06 ④
 07 소리가 세짐에 따라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08 ㉠ ㅅ ㉡ 목구멍의 모양을 본뒀다. ㉢ ㅁ 09 ④ 10 ⑤
 11 ① 12 ⑤ 13 (1) 가획 (2) ㅇ 14 ⑤ 15 ④ 16 ②
 17 ② 18 ㅇ, ㅌ, ㅎ

- 01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말을 적을 고유의 문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는데, 문자를 배울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백성들은 글로 전해지는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시된 상황에서 ‘한자를 배울 처지도 아닌데.’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 02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실용 정신과 관련 있다.
- 03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 글자의 수가 적은 것은 맞지만, 창제 당시의 자음자 중에서 ‘ㅇ, ㅌ, ㅎ’은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다.
- 04 한글 자음자는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들기 때문에,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같고 소리의 세기는 다르다. ‘ㄷ, ㅌ’은 자음 기본자 ‘ㄴ’에 가획하여 만든 자음자이고, ‘ㅁ’은 입의 모양을 본뜬 자음 기본자이다.
- 05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ㄹ, ㅅ, ㅇ’으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소리 나는 위치는 모두 다르다.
- 06 한글 자음자 중에서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ㅂ’과 ‘ㅍ’은 자음 기본자 ‘ㅁ’에 가획하여 만든 자음자들이므로 ‘ㅁ, ㅂ, ㅍ’은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 07 제시된 자음자들은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들로, 가획자는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 08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는 ‘ㅅ’이고,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뒀으며, 입 모양을 본뜬 글자는 ‘ㅁ’이다.
- 09 ㉠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자음자는 ‘ㄴ’이고, ㉡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 ‘ㄱ’에 획을 한 번 더해 만든 글자는 ‘ㅋ’이다.

- 10 한글의 자음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로 다른 자음자들을 만들었다.
- 11 학생들은 차례대로 자음 기본자와 가획자, 병서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ㄱ’의 가획자는 ‘ㅋ’이고, 병서자는 ‘ㆁ’이다.
- 12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 외의 자음자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자음 기본자와 가획자는 소리 나는 위치는 같고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천지인의 조화라는 철학적 원리는 모음 기본자의 제자 원리와 관련 있다.
- 13 (1) ‘ㄱ’에 획을 더해 ‘ㅋ’을, ‘ㄴ’에 획을 더해 ‘ㄷ’과 ‘ㅌ’을, ‘ㄹ’에 획을 더해 ‘ㅂ’과 ‘ㅃ’을, ‘ㅅ’에 획을 더해 ‘ㅈ’과 ‘ㅊ’을 만든 것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 목구멍소리의 기본 자음자는 ‘ㅇ’이다.
- 14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ㄱ, ㄴ, ㄹ, ㅅ, ㅇ’ 5개로, 자음자가 이것으로만 구성된 단어는 ⑤ ‘국수’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ㅈ’은 가획자이다.
- ② ‘ㄹ’은 이체자, ‘ㅊ’은 가획자이다.
- ④ ‘ㄹ’은 이체자이다.

- 15 입의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ㅁ’이고 이보다 센 소리는 ‘ㅂ’과 ‘ㅃ’이다. 사람 모양을 본뜬 기본자 ‘ㅇ’에 기본자를 한 번 합한 글자는 ‘ㅅ, ㅆ’이다.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ㄴ’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글자는 ④ ‘판’이다.
- 16 ‘ㄹ’은 자음 기본자, ‘ㅊ’는 초출자, ‘ㄷ’은 ‘ㄴ’의 가획자이다. ‘ㅎ’은 ‘ㅇ’의 가획자, ‘ㅋ’는 재출자, ‘ㅇ’은 자음 기본자이다. 따라서 ② ‘말형’이 표에서 설명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각: 기본자 + 초출자 + 기본자
정: 가획자 + 초출자 + 기본자
- ③ 양: 기본자 + 재출자 + 기본자
삼: 기본자 + 기본자 + 기본자
- ④ 큰: 가획자 + 기본자 + 기본자
딸: 병서자 + 초출자 + 이체자
- ⑤ 필: 가획자 + 기본자 + 이체자

연: 기본자 + 재출자 + 기본자

- 17 <보기>는 병서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글자는 ‘ㄱ, ㄴ, ㄷ, ㅈ, ㅊ, ㅎ’ 6개이다.
- 18 한글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자음자 중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것은 ‘ㅇ(옛이음)’, ‘ㅅ(반지음)’, ‘ㅇ(여린히음)’ 3개이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1

20~21쪽

1 ① 1-1 ⑤ 1-2 (1) ㅈ (2) ㅊ 2 ②, ③ 2-1 ④ 2-2 ㉠, 모아쓰기 3 ③ 3-1 경화, 연수 4 ③ 4-1 ⑤

- 1 제시된 글자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이처럼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상형’이라고 한다.
- 1-1 <보기>는 모음자의 제자 원리 중 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사람을 본떠서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 1-2 <보기>에 나타난 제자 원리는 모음자를 합하여 다양한 모음자를 만드는 합용이다. (1)에는 초출자 ‘ㄴ’과 ‘ㄱ’가 결합하여 ‘ㄴ’이 되는 과정이, (2)에는 초출자 ‘ㅊ’과 기본자 ‘ㅇ’이 결합하여 ‘ㅈ’이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2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는 모아쓰기를 하며, 모음자는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 쓴다. 또한 글자의 받침, 즉 종성을 표현할 때에는 자음자만 쓸 수 있다.

2-1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이때 모음자는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 쓴다.

오답 풀이

- ① 한글은 모아쓰기를 하며, 가로와 세로 중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 ② ‘ㄱ, ㅋ’ 등은 자음자의 오른쪽에 붙여 쓰는 모음자이다.
- ③ ‘ㅡ’는 자음자의 아래쪽에 붙여 쓰는 모음자이다.
- ⑤ 모음 기본자 중 ‘·’, ‘ㅡ’는 자음자의 아래쪽에, ‘ㅣ’는 자음자의 오른쪽에 붙여 쓴다. 그밖의 모음자도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 쓴다.

2-2 ㉠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모아쓰기’이고 ㉡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낱낱이 늘어놓는 ‘풀어쓰기’이다.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다.

3 한글 ‘ㅏ’는 결합하는 자음과 상관없이 항상 [아]라는 하나의 소릿값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영어 알파벳 ‘a’는 단어에 따라 [아], [에이], [어] 등 여러 가지로 발음한다.

3-1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이므로 경화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 원하는 한자를 찾아 변환해야 하므로 연수의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4 한글은 적은 수의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합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확장하기 때문에 글쇠 수가 제한된 자판에도 글자를 효율적으로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1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결합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율적이다.

오답 풀이

- ① 한글은 가획과 합성, 합용 등의 원리에 따라 글자를 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한자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이고,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이다.

타내는 우리의 독창적인 문자이다.

- ③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다.
- ④ 한글은 글자를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2

22~25쪽

01 ② 02 (1)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2) 모음 기본자 ‘ㅡ, ㅣ’에 ‘·’를 한 번 합하여 03 ④ 04 ⑤ 05 ① 06 ② 07 ① 08 ④ 09 ① 10 ④ 11 ② 12 ④ 13 ⑤ 14 ① 15 (가)에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나)에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01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천지인을 상형하여 만들었고, 초출자와 재출자는 모음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오답 풀이

- ① 모음 기본자는 ‘·, ㅡ, ㅣ’ 3개이다.
- ③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천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
- ④ 모음자는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서 모아 쓴다.
- ⑤ 창제 당시에 모음자는 기본자 3자, 초출자 4자, 재출자 4자를 더하여 총 11자를 만들었다.

02 한글의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고, 초출자 ‘ㅑ, ㅕ, ㅓ, ㅖ’는 모음 기본자 ‘ㅡ, ㅣ’에 ‘·’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다.

03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처럼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상형’이라고 한다.

- 04 모음 기본자 중에서 ‘·’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
- 05 초출자(ㅏ, ㅑ, ㅓ, ㅕ)는 모음 기본자를 한 번 합하여 만들었고, 재출자(ㅛ, ㅜ, ㅠ, ㅠ)는 초출자에 다시 모음 기본자 ‘·’를 합하여 만들었다.
- 06 여학생이 설명하는 모음자는 ‘ㅣ’이다. 남학생이 설명하는 모음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모음자(·)와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모음자(ㅡ)를 순서대로 합한 ‘ㅏ’에 다시 ‘ㅑ’를 합한 ‘ㅛ’이다. 이 두 모음자가 모두 사용된 단어는 ② ‘기와’이다.
- 07 <보기>에서 모음자 ‘ㅑ’와 ‘ㅕ’를 만든 제자 원리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합성이다.
- 08 <보기>는 재출자에 대한 설명으로, 재출자에는 ‘ㅛ, ㅜ, ㅠ, ㅠ’가 있다. ④ ‘엄마’에 쓰인 모음자는 모두 초출자이다.
- 09 <보기>는 모음자의 합용에 관한 것이다. ‘ㅏ’와 ‘ㅑ’가 결합하여 ‘ㅛ’가 되고, ‘ㅑ’와 ‘ㅣ’가 결합하여 ‘ㅕ’가 되고, ‘ㅕ’와 ‘ㅣ’가 결합하여 ‘ㅠ’가 되므로 빈칸에는 차례대로 ‘ㅑ, ㅕ, ㅠ’가 들어가야 한다.
- 10 한자를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뒤 원하는 한자를 찾아 변환해야 하므로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한글의 입력 방식이 더 쉽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 11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가 세짐에 따라 가획하여 자음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글자들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소리가 비슷한 글자라도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2 (가)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창제 원리 덕분에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13 (나)는 모아쓰기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은 모아쓰기 때문에 풀어쓰기를 하는 영어 알파벳에 비해 한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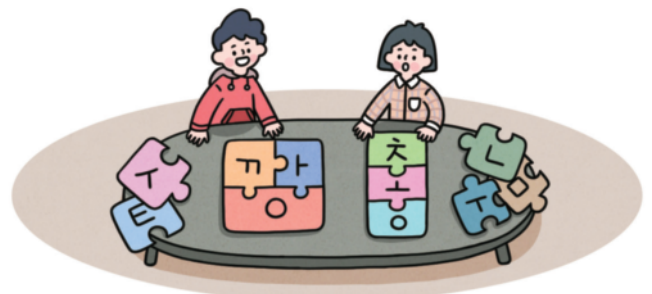
오답 풀이

- ① (나)에서는 초성과 중성, 중성을 합쳐서 ‘강’처럼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모아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③ 한글의 표기 방법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

는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의 특성을 담고 있다.

④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며, 글자를 합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체계적인 제자 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모음자로도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

- 14 (다)에서는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비교하여, 한글의 모음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지만 영어 알파벳의 모음자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5 (가)의 모음자 최소형 자판에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나)의 자음자 최소형 자판에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누구나 합격 전략

26~29쪽

01 ⑤ 02 •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난다. • 글자(한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는 백성이 가없다고 한 것에서 애민 정신이 드러난다. •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편리하게 쓰도록 한다는 것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03 ④ 04 ② 05 ⑤ 06 ②, ③ 07 ② 08 ④ 09 ③ 10 ② 11 가획 12 (1) ㄱ (2) ㅍ (3) ㄱ 13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1)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입니다. (2) 'ㄴ'을 누른 후 획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01 제시된 글에서는 우리말과 중국 말에 차이가 있어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세종 대왕은 발음 기관의 모양과 천지인을 본떠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
- 02 우리말이 중국 말과 다르다고 한 것에서 자주정신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을 가없게 여겼다는 점에서 애민 정신이, 모든 사람이 쉽게 쓰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 03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ㅇ'은 입 모양, 'ㅅ'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 04 한글 자음자는 소리가 세짐에 따라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자와 그 가획자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고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 05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는 'ㅇ'이다.
- 06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자음자 중에서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ㅇ(옛이음)', 'ㅅ(반치음)', 'ㅇ(여린히음)' 3개이다.
- 07 모음 기본자는 '·, ㅡ, ㅣ' 3개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각각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중에서 '·'는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다.
- 08 'ㅏ'는 기본자인 'ㅣ'와 '·'를 한 번 합하여 만든 초출자

'ㅏ'에 '·'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 09 'ㄱ, ㅌ, ㅍ'은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서 만든 병서자이다.
 - 10 '초성'의 설명에 해당하는 글자는 'ㄴ'이고, '중성'의 설명에 해당하는 글자는 'ㅣ'와 '·'를 합하여 만든 'ㅏ'이고, '종성'의 설명에 해당하는 글자는 'ㅅ'이다. 이를 합하면 '낫'이 된다.
 - 11 제시된 자음자들은 모두 기본 자음자에 획을 더해 만든 것이다. 'ㅈ, ㅊ'은 'ㅊ'에, 'ㄷ, ㅌ'은 'ㄷ'에, 'ㅍ, ㅑ'은 'ㅍ'에, 'ㅇ, ㅎ'은 'ㅇ'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
 - 12 (1) 'ㄴ'에 '·'를 순서대로 합하면 '·'를 'ㄴ'의 아래에 써서 'ㄴ'이 된다.
(2) 'ㅇ'에 '·'를 합하면 'ㅇ'이 된다.
(3) 'ㄱ'에 'ㅣ'를 합하면 'ㅣ'를 'ㄱ'의 오른쪽에 써서 'ㄱ'이 된다.
 - 13 영어 알파벳 'a'는 [에], [에이], [아] 등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데, 한글 'ㅏ'는 [아]라는 한 가지 소리만으로 발음한다. 즉,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 14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해서,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 15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에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획'은 한글의 자음자를 만든 제자 원리 중 하나이다.
 - ②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한 것은 한글이다.
 - ③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소리는 'ㄱ, ㅋ' 등이다.
 - ④ 한글 'ㅏ'는 [아] 한 가지로만 발음하며, 여러 가지로 발음하는 것은 영어 알파벳의 모음자이다.
 - 16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쓰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다.



- 17 한국어는 ‘언어’이고 한글은 ‘문자’이므로, 한국어의 계통과 문법적 특성을 정리한 자료는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 18 제시된 그림은 자음자 최소형 자판으로, 자음자를 입력할 때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30~31쪽

01 ① 02 ② 03 ③ 음절 ④ 모아쓰기 04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한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하여 좁은 공간에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05 ③

- 01 제시된 내용은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에는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로만 구성된 ‘미인’이 알맞다. ㉡에는 모음자가 초출자인 ‘창’, ‘땅’이 알맞다. ㉢에는 초출자와 모음 기본자로 구성된 ‘아기’, 재출자와 초출자로 구성된 ‘야구’가 알맞다.
- 02 <보기>는 ‘ㄱ, ㅌ, ㅈ’과 같이 같은 글자나 서로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쓴 자음자인 병서자에 대한 설명이다. ㉠ ‘향한’에는 병서자가 쓰이지 않았다.
- 03 한글은 영어 알파벳과 달리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이러한 모아쓰기 덕분에 한글은 정보를 한눈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 04 (가)는 모아쓰기, (나)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한글을 적은 예이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 한번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 05 제시된 자료는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해서 배우기 쉬운 한글의 특성을 보여 준다. 모아쓰기도 한글의 장점이지만 제시된 자료에서 한자와 비교하여 알 수 있는 특성은 아니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32~33쪽

06 ⑤ 07 ② 08 합성 09 ② 10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11 해수, 아현 12 (1)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 (2)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 ‘ㄹ’에 획을 더해서 만든 자음자

- 06 (가)를 통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ㅌ, ㅊ, ㅌ, ㅍ, ㅍ, ㅍ, ㅍ, ㅍ, ㅍ’을 만들었음을, (나)를 통해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 ㉠에는 ‘ㄴ’이 들어가야 한다.
- ㉡ ㉡에는 ‘ㅇ’이 들어가야 한다.
- 07 제시된 자판은 배치된 자음자에 획을 추가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자음자 최소형 자판으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자음 기본자의 제자 원리인 상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 08 모음 기본자 ‘·, ㅡ, ㅣ’ 외의 다른 모음자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 09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은 자음 기본자(ㄱ, ㄴ, ㄷ, ㅌ, ㅊ, ㅌ, ㅍ, ㅍ, ㅍ, ㅍ, ㅍ, ㅍ)이고,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자음자는 가획자이다. 가획자에는 ‘ㅋ, ㆁ, ㆏, ㆑, ㆒, ㆓, ㆔, ㆕, ㆖, ㆗, ㆘, ㆙’이 있다. ㉡에 사용된 자음자는 모두 기본자이다.
- 10 영어 알파벳은 가로쓰기만 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 긴 정류장 이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담기 어렵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다.
- 11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가로세로로 결합하는 모아쓰기를 한다. 이때 모음자는 자음자의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붙여 쓴다. 초성은 자음자로, 중성은 모음자로, 종성은 자음자로 표현하여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도 있다.
- 12 ‘입’에서 초성의 ‘ㅇ’은 자음 기본자로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자음자이다. 중성의 ‘ㅂ’은 ‘ㅁ’에 획을 더해서 만든 자음자이다.

2주 단어의 발음과 표기

1일 개념 돌파 전략 1

36~39쪽

01 소리, 형태 02 표준어, 발음 03 ④ 04 (1) ㉠ (2) ㉢
 (3) ㉠ (4) ㉠ 05 (1) 일코 (2) 만:쏘 06 ① 07 (1) ㄱ (2) ㅂ
 08 ② 09 (1) 흑 (2) 말꼬 10 (1) 짚따 (2) 밥:꼬 (3) 넙쩌카게
 11 ④ 12 ③ 13 ㉢ 14 차례, 가져오니 15 (1) 되었다
 (2) 안

- 0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02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로 정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03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 04 받침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인 경우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 [ㄷ]으로 발음하고,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소릿값대로 [ㅅ]으로 발음한다.
- 05 (1) 받침 ‘ㅎ(ㄸ, ㄹㅎ)’ 뒤에 ‘ㄱ, ㄷ,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의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ㅅ]으로 발음하므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한다.
 (2) 받침 ‘ㅎ(ㄸ,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 ‘ㅅ’을 [ㅍ]으로 발음하므로 ‘맑소’는 [만:쏘]로 발음한다.
- 06 받침 ‘ㅎ(ㄸ,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낳은’은 받침 ‘ㅎ’을 발음하지 않고 [나은]으로 발음한다.
- 07 (1) ‘ㄱ’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2)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 08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앞엿것은 앞 음절에 남고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며, 이 경우 ‘ㅅ’은 [ㅍ]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값을’은 [갑쓸]로 발음해야 한다.
- 09 (1)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흙’은 [흑]으로 발음한다.

(2)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하므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한다.

- 10 (1)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하므로 ‘짚다’는 [짚따]로 발음한다.
 (2) ‘뱌-’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므로 ‘뱌고’는 [뱌:꼬]로 발음한다.
 (3) ‘넙-’이 포함된 파생어나 합성어 중 ‘넙적하다’ 등에서 ‘넙-’은 [넙]으로 발음하므로 ‘넙적하게’는 [넙쩌카게]로 발음한다.
- 11 단모음 중 ‘ㅜ,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로 발음된다.
- 12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아’의 ‘ㅏ’는 단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 1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ㅣ’는 [ㅣ]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히망]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나의’는 [나의/나에]로 발음한다.
- 14 ‘예, 레’는 [예], [레]로 발음하므로 ‘차례’는 [차례]로 발음하고,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하므로 ‘가져오니’는 [가져오니]로 발음한다.
- 15 (1)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이므로 ‘되었다’ 또는 ‘됐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2) ‘안’은 ‘아니’를 줄여서 쓴 말이고, ‘않-’은 ‘아니하-’를 줄여서 쓴 말이므로 ‘안’이 올바른 표기이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40~41쪽

- 01 (1) ㉠, ㉡, ㉢, ㉣ (2) ㉤, ㉥, ㉦, ㉧ 02 ㉨ 03 ㉩ 04 ㉪
- 05 ㉫ 힌 ㉬ 무니 ㉭ 너의/너에 06 ㉮

- 01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므로, 받침이 이 7개 자음 중 하나이거나 받침이 없는 ‘질문’, ‘사과’, ‘가위’, ‘지우개’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이 외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 02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므로, 받침이 제 소릿값으로 발음되는 단어는 ⑤ ‘창문[창문]’이다. 나머지 단어들의 표준 발음은 ‘옷[읏]’, ‘숲[슉]’, ‘히읇[히읇]’, ‘날개[날:개]’이다.
- 03 ‘부엌 안’은 ‘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안’이 연결되었으므로 ‘엌’의 받침 ‘ㄱ’을 대표음 [ㄱ]으로 바꾸고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부어간]으로 발음한다.
- 04 용언의 어간 발음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②의 ‘불개’는 [북개]가 아니라 [불개]로 발음한다.
- 05 모음 ‘니’는 이중 모음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하므로 ㉠ ‘힌’은 [힌], ㉢ ‘무니’는 [무니]로 발음한다. 또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 ‘너의’는 [너의] 또는 [너에]로 발음한다.
- 06 ④의 ‘설거지’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단어이므로 ‘설거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떡볶기’는 ‘떡볶이’, ‘입까심’은 ‘입가심’, ‘노코’는 ‘놓고’, ‘조은’은 ‘좋은’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떡볶기 → 떡볶이
- ② 입까심 → 입가심
- ③ 노코 → 놓고
- ⑤ 조은 → 좋은

2일 필수 체크 전략 1

42~43쪽

- 1 ㉠ 1-1 ㉡ 2 ㉢ 2-1 ㉣ 2-2 (1) 심하데, 날아야 (2) 심하대, 나아야 3 ㉤ 3-1 ㉥ 3-2 ㉦ 4 ㉧ 4-1 ㉨

- 1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예외 없이 소리대로 적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1 ‘꼬치’, ‘꼰나무’, ‘꼰짜’처럼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적을 경우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꽃이’, ‘꽃나무’, ‘꽃과’처럼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원칙이 한글 맞춤법에 더해진 것이다.
- 2 ①의 ‘바라’의 기본형은 ‘바라다’로, ‘바라’, ‘바라니’와 같이 활용한다.
- 오답 풀이
②의 ‘웬지’는 ‘웬지’, ③의 ‘안 되’는 ‘안 돼’, ④의 ‘웬일인지’는 ‘웬일인지’, ⑤의 ‘뵤요’는 ‘뵤요’ 또는 ‘뵤어요’로 표기해야 한다.
- 2-1 ‘잠그다’의 어간 ‘잠그-’와 어미 ‘-어/-아’가 결합하여 활용될 때에는 ‘잠가야’라고 표기해야 한다.
- 2-2 ‘-다고 해’가 줄어든 말은 ‘-데가 아니라 ‘-대’이고,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날다’가 아니라 ‘낫다’이다. ‘날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뜻이다.
- 3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외의 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의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발음한다. 그러므로 제시된 단어 중에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날씨, 눈물, 할머니’이다.
- 3-1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앞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ㄷ, ㅂ’이고 뒤에 결합하는 자음이 ‘ㄱ, ㄷ, ㅂ, ㅅ, ㅈ’일 경우, 뒤의 자음을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로 발음한다. ②는 [뎡따], ③은 [빉따], ④는 [쫘따], ⑤는 [부억]이 표준 발음이다.

자료실

받침 뒤에 연결되는 자음자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ㅍ, ㅍ, ㅍ), ㄷ(ㅌ, ㅍ, ㅍ, ㅍ, ㅍ), ㅂ(ㅍ, 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ㄱ, ㄷ, ㅂ’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물론이고 ‘ㄱ, ㅋ, ㆁ, ㄷ, ㅌ, ㅍ, ㅍ, ㅍ, ㅍ’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ㄱ, ㄷ,

ㅂ'으로 끝나지 않아도 끝소리가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 되는 경우 동일한 성격으로 된소리가 된다.

예) 넓죽하다[넙쭈카다], 읊조리다[읍쪼리다]

3-2 ⑤는 [喃], [喃:깨], [喃:따]로 발음하여, 받침이 모두 [ㄷ]이다.

오답 풀이

- ① [슉], [삽], [감:]
- ② [강], [정:], [히은]
- ③ [달], [돌:], [닥떠]
- ④ [박], [부억], [그름]

4 흘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옷이'의 경우 받침 'ㅅ'을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4-1 '밭을'은 받침 'ㅌ'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므로 제 소릿값대로 연음하여 [바틀]로 발음하고, '밭 아래'는 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므로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바다래]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① 옷장 → [온짱]
- ② 옷 위 → [오뒤]
- ③ 부엌에 → [부어케], 부엌 안 → [부어간]
- ⑤ 겉옷을 → [거도슬]



2월 필수 체크 전략 2

44~47쪽

01 ⑤ 02 ⑤ 03 ① 04 낙지볶음밥과 → 낙지볶음밥과, 오징어덮밥을 → 오징어덮밥을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1) [부억], [밤喃], [강물], [히은], [눈물], [곧], [喃], [슉], [곧], [밥] (2)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만 발음한다. 10 ② 11 ⑤ 12 ② 13 ② 14 'ㅅ'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 제 소릿값대로 발음한다. 15 ② 16 ② 17 ④ 18 ㉠ 수반 ㉡ 허두슴 ㉢ 실질 형태소 ㉣ 대표음

- 01 표준 발음법은 국어의 독창성이 아닌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했으며, 국어의 정확한 발음이 궁극하다면 한글 맞춤법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을 찾아봐야 한다.
- 02 ㉠~㉣은 각각 [수영이는], [겉:따가], [예:뽕], [꼬출], [꺼꺼]로 발음한다. 이 중에서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간의 형태를 고정하여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은 ㉠, ㉢, ㉣이다.
- 03 ①에서 밑줄 친 용언의 기본형은 '힘들다'이다. 어간 '힘들-'과 어미 '-ㅁ'을 결합할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는 <보기>의 규정에 따라서 '힘듭'으로 표기해야 한다.
- 04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도록 한다. '볶음밥'은 '볶다'에서, '덮밥'은 '덮다'에서 유래했음에 유의하여 올바르게 고쳐야 한다.
- 05 한글 맞춤법에서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겅이'는 소리대로 '설거지'로 표기하고, '조은, 노코, 떡볶이'는 어법에 맞도록 각각 '좋은, 놓고, 떡볶이'로 표기해야 한다.
- 06 'ㅅ'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갓'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으므로, '찌었다'의 준말은 '쨌다'로 적는다.
- 07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낫다'이고,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를 의미하는 단어는 '달이다'이므로 ⑤의 표기가 올바르게 바르다.

오답 풀이

- ① '뵈다'의 어간에 '-었-'이 어울린 것이므로 '뵈었던/뵈

던'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② '액체가 몹시 뜨거워서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 오르다'를 의미하는 '끓다'의 사동사는 '끓이다'이다.
- ③ [눈꼽]으로 발음하지만 '눈꼽'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 ④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일부 용언의 경우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ㄴ, ㄹ'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담귀야겠다'는 '담가야겠다'로 표기해야 한다.

자료실

어간의 끝 'ㄴ, ㄹ'가 줄어드는 경우

어간이 모음 'ㄴ'로 끝나는 동사 '푸다'와 어간이 모음 'ㅡ'로 끝나는 일부 용언은, 뒤에 어미 '-아/-어'가 결합하면 'ㄴ, ㄹ'가 나타나지 않는다. 'ㄴ'가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푸다' 하나이다.

푸다	아프다
푸-+-어→퍼	아프-+-아→아파
푸-+-어서→퍼서	아프-+-아도→아파도
푸-+-었다→폄다	아프-+-었다→아팠다

- 08 'ㅅ, ㅆ, ㅈ'은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 [ㄷ]으로 바뀌므로, '빳', '빷', '빹'은 단독으로 발음할 때 모두 [빈]으로 동일하게 발음한다.
- 09 우리말 음절의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만 발음하고, 그 밖의 자음은 이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서 발음한다.
- 10 <보기>는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 받침을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발에'의 표준 발음은 [바테]이다.
- 11 제시된 단어 중에서 받침을 [ㄱ]으로 발음하는 것은 '박', [ㄷ]으로 발음하는 것은 '곧, 낱, 낫, 붓, 꽃, 밭, 히읗', [ㄹ]로 발음하는 것은 '말', [ㅂ]으로 발음하는 것은 '숲, 삽'이다.
- 12 받침 '표'은 [ㅂ], '크, ㄱ'은 [ㄱ], '스, ㅆ'은 [ㄷ]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과 ㉡의 받침소리가 [ㄱ]으로 같고, ㉢과 ㉣의 받침소리가 [ㄷ]으로 같다.
- 13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뿐이며, ②에 사용된 자음 'ㄱ'과 'ㄹ'은 모두 이 7개의 자음에 속한다.

- 14 '웃이'만 받침 'ㅅ'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제 소릿값대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ㅅ'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조사 '이'는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이다.
- 15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면 받침을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나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뀌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그러므로 ㉠은 [부어케], ㉡은 [무르뵤], ㉢은 [무르뵤], ㉣은 [위돋이] 표준 발음이다.
- 16 홀받침은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한다.
- 17 음절 끝에서 'ㄱ'은 [ㄱ]으로, 'ㅆ'과 'ㅈ'은 [ㄷ]으로 발음한다.
- 18 표준 발음법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될 때 대표음으로 바뀌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숲 안'은 [수반], '헛웃음'은 [허두슴]으로 발음한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1

48~49쪽

1 ② 1-1 ② 2 ① 2-1 ⑤ 3 ③ 3-1 ① 3-2 ② 4 ④
4-1 ② 4-2 ①

- 1 받침 ‘ㅎ’ 뒤에 ‘ㄱ’이 결합되는 경우 ‘ㅎ’과 ‘ㄱ’을 합쳐서 [크]로 발음하므로, ‘쌓기’의 올바른 발음은 [싸키]이다.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면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앉은’의 올바른 발음은 [아는]이다.
- 1-1 ‘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 ‘ㅅ’을 [쓰]로 발음하므로, ‘종소’는 [조:쓰]로 발음한다.
- 2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흙이’는 [흙기]로 발음한다.
- 2-1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ㅍ]로 발음하므로 ‘옳지’는 [옳찌]로 발음한다.
- 3 ‘뱃-’은 뒤에 자음이 오면 [ㅃ]으로 발음하므로, ‘뱃고’의 표준 발음은 [ㅃ:꼬]이다.
- 3-1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① ‘뱃다’의 표준 발음은 [ㅃ따]이다.

오답 풀이

② 겹받침 ‘ㄷ’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대체로 [기]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인 ‘ㄷ’이 ‘ㄱ’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 [리]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한다.
③, ④, ⑤ 겹받침 ‘ㅃ’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대체로 [리]로 발음하고, ‘뱃-’과 ‘뺏-’의 경우 예외적으로 [ㅍ]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짚다’는 [짚따], ‘뺏다’는 [뺏따], ‘뺏죽하다’는 [뺏쭈카다]로 발음한다.

- 3-2 ① ‘값’은 [갑], ③ ‘뱃다’는 [ㅃ:따], ④ ‘옳다’는 [옳따], ⑤ ‘뺏둥글다’는 [뺏똥글다]가 표준 발음으로, 밑줄 친 음절의 끝소리가 모두 [ㅍ]이다. ② ‘뺏다’의 ‘뺏-’만 음절의 끝소리가 [리]로 발음된다.

- 4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의’는 [니]로만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예, 례’ 이외의 ‘의’는 [네]로도 발음하므로 ㉠ ‘계’는

[계/계]로 발음한다.

②, 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 ‘의’와 ㉢ ‘의’는 [의/이]로 발음한다.

③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 ‘의’는 [의/에]로 발음한다.

- 4-1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반드시 [니]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리’는 [의:리]로 발음해야 한다.

- 4-2 ‘예’와 ‘례’는 각각 [예], [례]로 발음하는데, 이외의 ‘의’는 [네]로도 발음한다. ①의 ‘계’는 ‘예’와 ‘례’ 이외의 ‘의’에 해당하므로 [시계/시계]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②, ③ 이중 모음 ‘켜’는 [키]로 발음하는데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지, 찌, 치]로 발음하므로 ‘켜저’는 [커지], ‘다쳐’는 [다치]로 발음한다.

④ ‘례’는 [례]로만 발음하므로, ‘차례’는 [차례]로 발음한다.

⑤ ‘예’는 [예]로만 발음하므로, ‘예의’는 [예의/예이]로 발음한다.



01 ② 02 ① 03 ⑤ 04 ② 05 ㉠ [노코] ㉡ [논는]
 ㉢ [마:나서] 06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07 ③ 08 ① 09 ④ 10 [여덟], [밥:따니], [익찌], [일꼬] 11 ④ 12 ② 13 ㉠ ㉡ ㉢ ㉣ ㉤ ㉥ ㉦
 14 ② 15 ② 16 ② 17 ⑤

- 01 ‘끓이’는 받침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가 결합되므로 앞엿것은 앞 음절에 남기고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스’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끓이’는 [골씨]로 발음한다.
- 02 ‘놓고, 앉던, 끓지’는 ‘ㅎ’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어 ‘ㅎ’을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하는 예이다.

오답 풀이

- ② ‘끓지[끈치]’는 ㉠, ‘끓소[끈쏘]’는 ㉡, ‘좋은[조:은]’은 ㉣와 관련 있다.
- ③ ‘당소[다:쏘]’는 ㉡, ‘쌍게[싸케]’는 ㉠, ‘짙는[찐는]’은 ㉢와 관련 있다.
- ④ ‘뚫고[뚫꼬]’는 ㉠, ‘쌍은[싸은]’은 ㉠, ‘좋은[조:네]’는 ㉢와 관련 있다.
- ⑤ ‘싫소[실쏘]’는 ㉡, ‘싫어[시러]’는 ㉠, ‘싫지[실치]’는 ㉠와 관련 있다.
- 03 ‘얇은’과 같이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될 때에는 앞엿것은 앞 음절에 남기고 뒤엿것은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04 받침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② ‘뺑는’의 표준 발음은 [뺑:는]이다.
- 05 ㉠에서는 ‘ㅎ(ㄱ, ㄷ)’ 뒤에 ‘ㄱ’이 결합되므로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으로 발음한다. ㉡에서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므로 [ㄴ]으로 발음한다. ㉢에서는 ‘ㅎ(ㄱ,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므로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 06 ㉡ ‘놓는’의 받침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것은 (가)의 3과 관련된다.
- 07 받침 ‘ㅎ(ㄱ, ㄷ)’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하므로, ‘쌍기’는의 표준 발음은 [싸끼]이다.

오답 풀이

- ①, ④ ‘ㅎ(ㄱ, ㄷ)’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하므로 ‘쌍지’의 표준 발음은 [싸치]이고, ‘쌍다가’는의 표준 발음은 [싸타가]이다.
- ② ‘ㅎ(ㄱ,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쌍아도’의 표준 발음은 [싸아도]이다.
- ⑤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하므로 ‘쌍는’의 표준 발음은 [썩는]이다.
- 08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하므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한다.
- 09 ‘살다’는 겹받침 ‘ㅌ’ 뒤에 자음이 이어서므로 제11항에 따라 받침을 [ㄹ]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① ‘값이’의 올바른 발음은 [갑씨]이다.
- ② ‘넓고’의 발음은 제10항과 관련 있다.
- ③ ‘얇어’의 발음은 제14항과 관련 있다.
- ⑤ ‘닭똥’의 발음은 제11항과 관련 있다.
- 10 겹받침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체로 [ㄹ]로 발음하지만, 예외적으로 ‘뺏다, 넓죽하다, 넓둥글다’ 등에서는 [비]으로 발음한다.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체로 [ㄱ]으로 발음하지만, 예외적으로 어간 말음 ‘ㄷ’이 ‘ㄱ’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 [ㄹ]로 발음한다.
- 11 <보기>에 제시된 단어는 각각 [밥:께], [안자], [담:꼬], [달글], [익찌], [여덟], [할꼬], [살믄], [짚따], [넙쭈칸]으로 발음한다. 이 가운데 겹받침 중 뒤엿것으로 발음하는 것은 ‘뺏께’, ‘닭고’, ‘익지’, ‘넓죽한’이다.
- 12 ‘끓[골]’, ‘뚫[뚫]’, ‘훑다[훑따]’, ‘여덟[여덟]’, ‘앉다[안따]’, ‘훑다[할따]’는 겹받침 중 앞엿것을 발음하는 예이고, ‘취[칙]’, ‘얇[암:]’, ‘훑[훑]’, ‘넓죽하다[넙쭈칸다]’는 겹받침 중 뒤엿것을 발음하는 예이다.
- 13 ‘ㄴ’은 이중 모음 [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또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하고,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14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흰 눈’은 [흰눈]으로 발음해야 한다.

15 '예, 레' 이외의 '케'는 [계]로도 읽을 수 있으므로, [해:택]과 [헤:택] 모두 표준 발음이다.

오답 풀이

- ① '넙-'은 '넙죽하다'와 '넙둥글다'의 경우 [넙]으로 발음하므로 '넙죽한'의 표준 발음은 [넙쭈칸]이다.
- ③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하마의'의 표준 발음은 [하마의/하마예]이다.
- ④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하므로 '가져'의 표준 발음은 [가져]이다.
- ⑤ 'ㅎ(ㄸ,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맑은'의 표준 발음은 [마:는]이다.

16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의'는 [민주주의의/민주주의에/민주주의의/민주주의에]로 발음하고 '의의'는 [의의/의이]로 발음한다. '의의'를 [이의]로 발음할 수는 없다.

17 '예의'를 [예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이유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니'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예의'의 '의'가 조사라면 [예의] 또는 [예에]로 발음해야 한다.

누구나 합격 전략

54~57쪽

01 ① 02 ② 03 ⑤ 04 어법에 맞게 표기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05 ② 06 ② 07 ⑤ 08 (1) 곧 위, 꼬뒤 (2) 견올, 거돋 (3) 닥 울음, 다구름 09 ① 10 ② 11 ② 12 ① 13 (1) 노늬의, 노늬에, 노늬의, 노늬에 (2)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14 ① 15 ④

- 01 '억그제'의 정확한 표기는 '엇그제'이고, 흘받침은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므로 [엇끄제]로 발음해야 한다.
- 02 <보기>에서 받침으로 사용된 'ㄷ, ㅅ, ㅆ, ㅈ, ㅊ, ㅎ, ㅍ'은 모두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 03 '아래'와 '위'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다. <보기>에는 흘받침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뒤 대표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04 '낫다'와 '낱다'는 표기가 다르지만 활용할 때 발음이 같아 져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므로 전달하려는 의미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나)에서 대한이는 '낫다'라고 표기해야 할 상황에 '낱다'라고 표기하여 윤기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지 못했다.
- 05 '김치찌개'와 '즉석 떡볶이'는 올바른 표기이다. ㉠은 '육개장'으로, ㉡은 '주꾸미뽕밥'으로, ㉢은 '갈치조림'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6 '니'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에서는 '되어'나 그 준말인 '돼'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에서는 '아니'의 준말인 '안'이 올바른 표기이다.
- ③ ㉡에서는 '어떻게 해'의 준말인 '어떡해'가 올바른 표기이다.
- ④ ㉢에서는 '어찌 된 일'을 뜻하는 '웬일'이 올바른 표기이다.
- ⑤ ㉣에서는 '꼭'을 의미하는 '반드시'가 올바른 표기이다.
- 07 ㉣의 '시퍼요'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게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싫어요'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의 '시듬'과 ㉡의 '움', ㉢의 '만듬'을 어법에 맞게 적으려면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각각 '시뒸', '윽',

‘만들’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의 ‘없음’의 발음은 [업:쌈]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08 <보기>는 먼저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웃[으]’과 ‘울음[우름]’의 발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09 ‘무늬’의 ‘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이므로, ‘다만 3’에 따라서 [무니]로만 발음해야 한다.

10 ‘맑아지겠지만’은 ㉡에 따라서 겹받침 ‘리’의 뒤엎것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에 따라서 쌍받침 ‘ㅍ’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한다.

11 겹받침 ‘빠’은 대체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데, 예외적으로 ‘뺨-’의 경우에는 자음 앞에서 [비]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뺨다니’의 표준 발음은 [뺨:따니]이다.

12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면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꿔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3 ‘의’는 [니]로 발음해야 하지만 ‘논의의’에서 둘째 음절의 ‘의’는 [이]로도 발음할 수 있고, 조사 ‘의’는 [기]로도 발음할 수 있다.

14 ‘ㅎ(ㄷ, ㄹ)’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하므로, ‘옹지’는 [올치]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②, ⑤ ‘ㅎ(ㄷ, ㄹ)’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하므로, ‘괘찮다’는 [괘찬타]로, ‘솔직하게’는 [솔찌카게]로 발음한다.

③, ④ ‘ㅎ(ㄷ,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않아요’는 [아나요], ‘놓여’는 [노여]로 발음한다.

15 ‘맛있다’는 받침 ‘ㅅ’ 뒤에 실질 형태소 ‘있-’이 결합되므로 ‘ㅅ’을 대표음 [ㄷ]으로 바꿔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마딤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마신타]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료실

‘맛있다/멋있다’의 발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 ‘맛, 멋’의 받침 ‘ㅅ’을 대표음 [ㄷ]으로

바꾼 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마딤따], [머딤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 발음에서 [마신타], [머신타]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맛이 있다, 멋이 있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맛이 있다, 멋이 있다’의 경우 ‘맛, 멋’ 뒤에 형식 형태소인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으므로 연음이 되어 [마시 인따], [머시 인따]가 되며, 이것이 줄어들어 [마신타], [머신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단어 내의 경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는 ‘맛/멋’과 ‘있다’가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사람들이 ‘맛있다, 멋있다’를 내부에 경계가 없는 한 단어로 인식하며 [마신타], [머신타]로 발음한다고 보는 것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58~59쪽

- 01 ③ 02 (가) 웃어른 (나) 뒷사람, 뒷집 (다) 위쪽, 위층
- 03 ④ 04 [밥:찌], [널꼬] 05 의무, 무예, 예지, 의지

01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꿔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겉옷을’은 받침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바꿔서 [거도슬]로 발음해야 한다.

- 02 '위-/윗-/웃'을 표기할 때 '위, 아래'의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웃-'으로 표기한다. '위, 아래'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위-/윗-'로 표기하는데, 이어지는 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경우 '위-'로 표기하고 그 밖의 경우 '윗-'으로 표기한다.

자료실

'위-/윗-/웃'의 표기

일반적으로 '위, 아래'의 개념상 대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웃-'으로 쓰고, 그 외에는 '윗-'을 표준어로 삼았다. 예를 들어 '웃돈'과 '윗돈' 중에서는 개념상 '아랫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웃돈'을 표준어로 삼고, '윗목'은 이에 대립하는 '아랫목'이 가능하므로 '웃목'이 아닌 '윗목'을 표준어로 삼았다.

- 03 '씨-'와 '-어라'가 결합하여 줄어들 때에는 '씨-'와 '-어'가 어울려 '쨌'가 되므로 '쨌라'라고 표기해야 한다.
- 04 '넓다[널따]'와 같이 겹받침 'ㄷ'은 대체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하는데, 예외적으로 '뺨-'은 자음 앞에서 [비]으로 발음한다.
- 05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예의[예의/예이]', '성의[성의/성이]', '의의[의:의/의:이]'는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또한 '예, 레' 이외의 'ㄷ'은 [기]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지혜[지혜/지혜]', '혜성[혜:성/혜:성]'도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60~61쪽

- 06 ⑤ 07 ⑤ 08 자음 앞에서 [리]로 발음한다. 09 ②
10 ③ 11 (1) 닫혔다 (2) 부치면서 (3) 가리키는 12 ⑤

- 06 <보기>에서 받침 '츠'이 제 소릿값인 [츠]으로 소리 나는 경우는 '빛을[비출]뿐이다. '빛을'은 받침 '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이다.
- 07 겹받침 '러'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기]으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러'이 '기'과 만나는 경우에는 [리]로 발음하므로, '밝고'는 [발꼬]로 발음해야 한다.
- 08 겹받침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앞엿것이나 뒤엿것 중 하나로 발음하는데, '뺨'은 대체로 앞엿것인 [리]로 발음한다.
- 09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연음이 되지 않으며, 'ㄷ, ㅌ'을 [즈, ㅌ]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자료실

구개음화

표준 발음법 제17항은 구개음화 현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ㄷ, ㅌ(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ㄷ, ㅌ'이 [즈, ㅌ]으로 발음된다. 이 현상은 잇몸소리인 'ㄷ, ㅌ'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가까워져 센입천장소리(구개음) '즈, 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모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모음 'ㅣ' 중에서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ㅣ'는 [ㅣ]로 발음하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와 조사 '의'는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므로 [ㅣ]로만 소리나는 것은 첫소리가 모음이며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의'이다.
- 11 '하루의 영업을 마치다.'라는 뜻의 '닫다'의 피동사는 '닫히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를 의미하는 것은 '부치다',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를 의미하는 것은 '가리키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 12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꿔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겉옷'은 [겉온 → 거둔]으로 발음한다.

3주 **담화의 개념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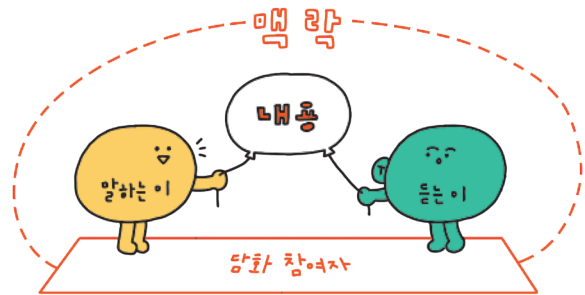
1일 개념 돌파 전략 1 64~67쪽

01 (1) 의사소통 (2) 발화 02 ③ 03 말하는 이 04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05 맥락 06 장소, 장면 07 가치, 사회 08 지역 09 세대 10 문화 11 역사 12 주제 13 ④ 14 ③

- 01 (1) 발화는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이다.
(2) 담화는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의 단위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이다.
- 02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담화 참여자(말하는 이, 듣는 이), 내용, 맥락이 있다.
- 03 담화 참여자에 따라 담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담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 04 담화에서는 담화 참여자의 의도나 처지, 관계에 따라 담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05 제시된 내용은 “양심을 지키세요.”라는 하나의 발화가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됨을 보여 준다.
- 06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상황 맥락의 요소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이 있다.
- 07 담화에 영향을 주는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 08 ㉠의 밑줄 친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의 밑줄 친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지역 방언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09 세대별로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상의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담화를 해석해야 한다.
- 10 언어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권별 특징이 나타나는 어휘나 표현이 있음을 고려하여 담화를 해석해야 한다.

다.

- 11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 배경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12 담화의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모아지는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
- 13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적절한 접속 표현이나 지시 표현 등으로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담화의 응집성이라고 한다.
- 14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담화 참여자인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발화의 개수는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68~69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 통일성 ㉡ 응집성 06 ①

- 01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황 맥락 모두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며,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 02 밑줄 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의도나 목적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가)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상황이므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있나요?’로 해석할 수 있고, (나)는 신발 가게에서 손님이 신발을 신어 보는 상황이므로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하지는 않나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03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맥락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담화의 구성 요소이지만,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04 우리나라에서는 ‘나의’라고 써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라는 말을 써서 그 대상이 말하는 이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데, 필립이 이러한 언어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아영이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
- 05 발화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하고,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한다.
- 06 빈칸의 앞 문장은 손님들이 떡볶이에 어떤 조미료를 넣는지를 묻는다는 내용이고, 뒤 문장은 떡볶이에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빈칸에는 ‘하지만’과 같이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 주는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1

70~71쪽

1 ③ 1-1 (1) 유미와 성현 (2) 교실 2 ⑤ 2-1 ① 2-2 음식
이 입맛에 맞았나요? 3 ④ 3-1 ③ 4 ② 4-1 ④

-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고정되어 있는 담화도 있지만, 대화 상황에서는 담화 참여자들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을 번갈아 하게 된다.
- 1-1 제시된 담화는 방과 후 교실에서 유미와 성현이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로, 시험을 앞두고 함께 시험공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 담화 참여자가 치과 의사와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밀줄 친 발화는 치과 의사가 환자의 치아 상태를 알아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2-1 제시된 대화의 담화 참여자는 미용사와 손님이다. 미용사의 “어떠세요?”라는 발화는 머리 모양이 손님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손님

의 답은 머리 모양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2-2 식당 주인이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오늘은 어떠셨어요?”라고 묻는 것은 음식이 손님 입맛에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제시된 담화에서는 담화의 구성 요소 중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가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
- 3-1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밀줄 친 발화는 나가서 농구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나가지 말자는 의미이다.
- 4 농촌 지역에 사는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자료실

‘팔다’의 의미

③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 예
 - 아버지는 늘 다니는 가게에서 쌀을 팔아 오셨다.
 - 친구에게서 싸게 쌀을 팔아 오는 덕분에 근근이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

- 4-1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역사적·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 세대, 지역 등이 있다. 시간과 장소는 상황 맥락에 해당한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2

72~75쪽

01 ④ 02 ⑤ 03 ② 04 여름이가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05 ② 06 ③ 07 (1) 잘 어울려.(예뻐.) (2) 아프지 않아. 08 ① 09 ② 10 ③ 11 ⑤ 12 (1) 금연해 주세요. (2)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13 ④ 14 ① 15 쌀을 사다, 지역 16 ⑤

- 01 '발화'란 머릿속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
- 02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적 배경은 하교 시간 이후이며, 개천절은 지수가 봉사 활동을 하기로 한 날이지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아니다.
- 03 담화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담화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담화라고 볼 수 있다.
- 04 가을이는 은행의 위치를 알아보려는 의도로 질문했는데, 여름이는 가을이의 질문을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의도에 맞지 않는 대답을 했다.
- 05 (가)와 (나)에서 "어떠세요?"라는 발화의 내용은 같지만, (가)에서는 머리 상태가 마음에 드는지를 묻는 의미로, (나)에서는 몸 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맥락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06 담화는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보기>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등의 상황 맥락이 드러나지 않아서 담화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
- 07 ㉠은 동생이 언니의 머리 모양에 대해 긍정하는 의미로, ㉡은 할머니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손자를 안심시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08 <보기>에서 말하는 이는 식당 주인이고 듣는 이는 손님이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밑줄 친 식당 주인의 말이 식사에 대한 손님의 의견을 묻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 09 (가)의 "5분 남았는걸."은 지금 학교 앞이고 등교 시간까지 5분의 여유가 있으므로 지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이다.

- 10 담화의 상황 맥락, 안경사와 손님이라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안경사의 발화는 새 안경이 손님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11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고려할 때 선생님의 "잘했다."라는 발화는 화분을 깬 행동을 나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12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를 고려할 때 <보기>는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과 관련된 의미로, 지하철 노약자석 앞에서는 자리 양보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13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말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 14 <보기>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설명이며, ㉠은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우리의 풍습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실

임진각

1971년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직후부터 2005년까지 개발된 우리나라 대표 통일 관광지이다. 휴전선에서 불과 7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며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이곳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 전쟁과 민족 대립을 반영하는 유물 및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1972년 실향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3층 건물인 임진각은 3층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 지역의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다.

- 15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을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연이는 고모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
- 16 <보기>에서 줄리엣은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하는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서 손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1

76~77쪽

1 ③ 1-1 ② 2 ④ 2-1 하지만(그러나, 그렇지만) 3 ④
3-1 ② 4 ② 4-1 ①

- 1 <보기>에 제시된 네 개의 발화는 각각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그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아서 이 담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 1-1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관되게 모아지는 것을 담화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 2 (나)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것’이라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2-1 ㉠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이어지므로 ㉠에는 역접의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 3 제시된 글의 주제는 서울 지명의 유래인데 ㉣는 창계천의 역사적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다.
- 3-1 ㉠은 냉이 손질법의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므로 ‘그리고’가 아니라 ‘먼저’가 적절하다.
- 4 ②에서 지연이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알아보려는 의도로 말했고, 이에 유빈이는 점심을 먹을 장소를 제안하며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다.
- 4-1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를 고려할 때, 제시된 발화는 다음 사람을 배려하여 공용 공간인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2

78~81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⑤ 05 ④ 06 ④ 07 ‘이’는 ‘일상 언어뿐 아니라 속담, 광고, 외래어, 신조어, 업무 용어, 정책 용어, 정부 홍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을 의미하며, 내용의 반복을 피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08 ① 09 수도권이 고장 난 부엌 10 ⑤ 11 ④
12 ① 13 ④ 14 ④ 15 ③ 16 ②

- 01 이 담화의 중심 내용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한다는 달인표 떡볶이의 맛에 대해 알아보자는 것이므로 ‘달인표 떡볶이 맛의 특별함’이 제목으로 적절하다.
- 02 ㉠의 앞에서는 떡볶이의 맛이 어떤지 이야기하고 ㉠의 뒤에서는 달인이 맛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담화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에는 달인표 떡볶이 맛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한다.
- 03 ㉠의 앞에서는 김치찌개가 생각난다고 하고 뒤에서는 유명한 김치찌개 맛집으로 떠난다고 했으므로 ㉠에는 순접의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의 앞에서는 김치찌개는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뒤에서는 김치의 감칠맛을 살린 김치찌개는 맛보기가 쉽지 않다고 했으므로 ㉡에는 역접의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 04 ‘이것’은 ‘김치의 감칠맛을 살린 김치찌개’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과는 관계없다. ⑤는 접속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 05 제시된 담화는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이므로 수련회가 취소되어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는 문장은 주제에서 벗어난다.
- 06 우리나라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 내용은 성차별 표현의 문제나 해결책이라는 주제에 어긋나므로 삭제하여 담화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
- 07 ‘이’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표현으로, 내용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간결하게 한다.
- 08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의 사례와 특징은 ‘성차별 표현의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09 상황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등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직접 관련된 맥락이다.

(가)의 답화는 수도관이 고장 난 부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10 엄마는 고장 나서 물이 새는 수도관에 대한 말만 하고 있고 레오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질문만 하고 있다. 이처럼 답화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11 ㉠ ‘여기’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며,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시 표현이 아니라 접속 표현이다.
- 12 ㉠에는 화제를 전환하는 기능의 접속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앞에 나온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지만,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다는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 13 <보기>의 답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발화는 약속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고, ‘언니’는 동성의 손위 형제, 혹은 남인 경우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를 정답게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친척이나 연상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이모’, ‘언니’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기를 쓴 외국인은 이러한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 15 제시된 답화는 아랫집에 사는 학생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다. 편지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한 매체는 아니다.
- 16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보기>에서 승우는 자신과 세대가 다른 할아버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나 합격 전략

82~85쪽

01 ① 02 ② 03 (가) ㉠ (나) ㉠ 04 ㉠ 새치기하지 말고 차례를 지키시오. ㉡ 시험 시 부정행위를 하지 마시오. ㉢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마시오. 05 ⑤ 06 ② 07 ③ 08 ③ 09 ③ 10 ⑤ 11 ⑤ 12 ④ 13 ③ 14 [A]는 승강기 안에서 겪은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해친다. 15 ⑤ 16 ㉠ 지시 ㉡ 저 어렸을 때 어땀어요?

01 답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답화 참여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답화의 의미는 이러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답화의 의미는 답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므로, 같은 내용의 발화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③ 답화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내용,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 중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답화는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난 발화의 연속체이다.
- 02 제시된 답화는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화 참여자와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 03 (가)에서는 통증이 사라졌다는 대답을 통해, (나)에서는 신발이 조금 크다는 대답을 통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 04 상황 맥락 중 키포인트가 설치된 장소를 고려해 의미를 해석해야 하므로 각 장소에서 양심을 지키지 않는 행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05 (가), (나)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답화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상황이다.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라는 동일한 발화가 (가)와 (나)에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 06 ②에서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을 나무라는 의도로 지금이 몇 시인지 물었는데 학생은 현재 시각을 대답했으므로 의

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07 '시원하다'라는 말은 '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라는 의미 외에 '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 08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은 민원 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은 의사가 환자에게 아픈 곳을 묻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09 서진이가 발화할 때에는 서진이가 말하는 이이고 유정이가 듣는 이이지만, 유정이가 발화할 때에는 유정이가 말하는 이이고 서진이가 듣는 이가 된다.
- 10 우리나라에는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하는 문화가 있는데, 줄리엣은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손님의 대답을 표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손님의 말을 차대접을 사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 11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겸손하게 한 번 거절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줄리엣은 예의상 차를 거절한 손님에게 한 번 더 차를 권하는 것이 좋다.
- 12 파블로는 손님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차린 것은 없지만'이라는 말을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했다.
- 13 제시된 담화는 지역 방언으로 쓰인 안내문을 본 두 학생이 대화이다. 학생 1은 지역 방언으로 된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학생 2는 표준어로 풀이한 것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14 "4층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습니다."는 승강기 안에서 겪은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다.
- 15 <보기>와 달리 [B]에는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서 문장들 사이의 의미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담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16 '그것'은 같은 내용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간결하게 구성하는 지시 표현으로,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킨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86~87쪽

- 01 담화의 구성 요소 중 맥락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02 ⑤ 03 (1) 자신과 지훈의 엄마 (2) 자신의 엄마 04 ③
- 05 ⑤

- 01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내용, 맥락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 02 제시된 탐구 사례를 통해 같은 말이라도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담화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국어에서는 '우리'를 말하는 이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지만,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 04 앞에 나온 말을 다시 가리키는 지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여 담화를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앞에도 나오는 내용이므로 '그것'과 같은 지시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다.
- 05 <보기>의 (가), (나)는 세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발화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88~89쪽

- 06 ② 07 ④ 08 ④ 09 ③ 10 영업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식사를 마무리해 주세요. 11 ④

- 06 어머니의 발화 의도와 목적을 고려할 때 "잘한다."라는 말에는 글쓴이를 나무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글쓴이가 어머니의 말씀을 표면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여 계속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머니가 화를 낸 것이다.
- 07 선생님이 지각한 학생을 꾸짖으려고 질문한 상황이므로 학생은 그러한 선생님의 의도에 맞게 대답해야 한다.
- 08 쪽지를 붙인 장소를 고려할 때, 제시된 쪽지 내용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비양심적인 행동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09 <보기>는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함께 쓰는 상황의 대화이다. 체육복을 빌려주는 것은 물건을 함께 쓰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 10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식당 주인의 발화는 곧 영업을 종료하니 식사를 마쳐 달라는 의미이다.



- 11 대화 상황에서는 담화 참여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 때문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역할을 번갈아 하게 된다.

권말 정리 마무리 전략

신유형·신경향·서술형 전략

92~95쪽

- 01 ③ 02 ④ 03 ㅅ(엷이음), △(반치음), ㅎ(여린히음)
- 04 한글은 글자(문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문자이다.
- 05 ③ 06 ㉠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면 ‘ㅎ’을 [ㄴ]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면 ‘ㅎ’은 발음하지 않고 뒤의 ‘ㅅ’을 [ㅆ]으로 바꾸어 발음한다. 07 첫음절의 ‘의’는 [-]로 발음하므로 ‘의문’은 [의문]으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지닌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한다. 08 ②
- 09 ① 10 육계장 → 육개장, 김치찌개 → 김치찌개, 깍두기 → 깍두기 11 ④, ⑤ 12 추석과 같은 명절에 친척 집에 방문하는 풍습이 있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13 ⑤

- 01 ㉠은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자와 된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쓰는 병서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보기>의 ‘나’와 ‘다’가 ㉠의 설명과 관련 있다.

오답 풀이

- ① ㉡은 자음 기본자인 ‘ㄱ’이 발음 기관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가’와 관련 있다.
- ② ㉢은 모음 기본자 3개로 다른 모음자들을 만들 수 있는 휴대 전화 자판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라’와 관련 있다.
- ④ ㉣은 기본자와 가획자의 모양과 소리의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나’와 관련 있다.
- ⑤ <보기>의 내용 중 ㉤의 설명과 관련 있는 내용은 없다.
- 02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ㄴ’이고 여기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는 ‘ㄷ, ㅌ’이다. 초출자 ‘ㅇ’에 기본자 ‘ㄴ’을 합한 글자는 ‘ㅇ’이다.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는 이체자로 ‘ㅇ, ㄹ, ㅍ’이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는 ④ ‘툭’이다.
- 03 자음자 ‘ㅇ(엷이음), △(반치음), ㅎ(여린히음)’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 04 한글 모음자 ‘ㅏ’는 ‘사과, 나이, 차’에서 모두 [ㅏ]로 발음

하는 데 비해 영어 알파벳 ‘a’는 단어에 따라 [에], [에이], [아] 등 여러 가지로 발음하고 있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한글의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함을 설명했다.	
주어진 문장 형식에 맞추어 서술했다.	

- 05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한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이 영어 알파벳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 06 [2단계]의 ㉠과 ㉡을 살펴보면 ‘ㄴ’ 앞의 ‘ㅎ’은 [ㄴ]으로 발음하고, ‘ㅅ’ 앞의 ‘ㅎ’은 발음하지 않으며 ‘ㅅ’을 [ㅆ]으로 바꾸어 발음하고 있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의 규칙을 참고하여 알맞은 내용을 서술했다.	
표준 발음을 근거로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했다.	

- 07 단어의 첫음절 ‘의’는 [이]로 발음해야 하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니]로 발음해야 한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의문’, ‘희망’의 올바른 표준 발음을 밝혔다.	
적절한 표준 발음법을 근거로 들어 서술했다.	

- 08 ㉠ ‘먹어’는 [머거]로 발음하는데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먹어’라고 적었으므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09 <보기>는 겹받침이 어말에서 둘 중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에는 어말에서 겹받침 중 앞엿것만 발음되는 예가 들어가야 한다. ‘값[갑], 뭇[목], 꺾[굴]’은 겹받침 중 앞엿것만 발음되고, ‘흙[흑], 삶[삼:]’은 겹받침 중 뒤엿것만 발음된다.
- 10 ‘육계장’은 ‘육개장’,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깍뚜기’는 ‘깍두기’가 올바른 표기이다.
- 11 ㉣의 “조금 아파요.”는 ㉠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며, (가)의 듣는 이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또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성별이 달라지더라도 ㉠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성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 12 우리에게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친척 집에 방문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다솨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다솨이의 반응이 자연스러운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했다.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서술했다.	

- 13 적절한 지시 표현을 사용하면 담화 상황에서 내용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01 ①, ③ 02 ④ 03 ‘ㅈ’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04 ⑤ 05 ③ 06 ④
07 ②, ④ 08 ② 09 ④ 10 ②

01 한글의 자음자는 소리가 세집에 따라 자음 기본자에 획을 추가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글자는 그 모양도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 ②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한 가지 소리로 발음된다.
- ④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으며, 천지인을 상형하여 만든 것은 모음 기본자이다.
- ⑤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모음자 중에서 ‘ㆍ’는 오늘날에 사용되지 않는다.

02 ‘ㄱ’은 ‘ㅣ’와 ‘ㆍ’를 합하여 만들고 ‘ㅇ’은 ‘ㆍ’와 ‘ㅡ’를 합하여 만들었으므로, ‘ㆍ’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ㅑ’는 모음 기본자를 두 번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 ② ‘ㅋ’의 기본자는 ‘ㄱ’이고 ‘ㅍ’의 기본자는 ‘ㅍ’으로, 두 기본자가 발음되는 위치는 서로 다르다.
- ③ ‘ㅈ’은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ㅈ’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 ⑤ ‘ㅠ’는 모음 기본자를 두 번 합성하여 만들었다.

자료실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

입술소리(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ㅂ, ㅃ, ㅍ, ㅁ
잇몸소리(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ㄸ, ㅌ, ㅅ, ㅆ, ㄴ, ㄹ
센입천장소리(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ㅉ, ㅊ
여린입천장소리(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ㄱ, ㅋ, ㆁ, ㅇ
목청소리(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ㅎ

03 ‘ㅈ’은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음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ㅈ’이 만들어진 과정을 자음 기본자와 관련지어 서술했다.	
‘ㅈ’이 만들어진 창제 원리를 포함하여 서술했다.	

04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ㅇ’의 가획자는 ‘ㅎ, ㅎ’이다.

05 모음자 중에서 모음 기본자를 두 번 합한 재출자로는 ‘ㅑ, ㅓ, ㅕ, ㅗ’가 있다. <보기>에 재출자는 사용되지 않았다.

06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자음자는 ‘ㄷ’이고, 이보다 센 소리가 나는 자음자는 ‘ㄸ, ㅌ’, 사람의 모양을 본뜬 모음자는 ‘ㅣ’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글자는 ‘티’이다.

07 <보기>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모음 기본자를 한 번 합한 초출자, ④는 모음 기본자를 두 번 합한 재출자에 대한 설명이다.

08 <보기>는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영어 알파벳과 달리,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익히고 기억하기 쉬운 한글의 특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09 한글 자음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가획하여 만들었으므로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끼리 모양이 비슷하다. 따라서 글자 모양을 보고 소리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어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의 특징이다.

10 (가)에는 모음 기본자를 합하여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고난도 해결 전략 2회

98~99쪽

01 ③ 02 6개 03 우리말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기 때문에 [이뵤에서]라고 발음해야 한다. 04 ③ 05 꼬치 소를 옮긴 거시지 / 소가 꼬뒤에 잠깐 뜬 세미지 06 ④ 07 ④ 08 ⑤ 09 ④ 10 ③ 11 붙이지, 맞히는, 대, 반듯이

01 '비치', '빈만', '빈짜'처럼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표기하면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혼란이 생기므로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빛이', '빛만', '빛과'로 표기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오답 풀이

①, ② 제시된 문장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어서 단어의 본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예이며, 띄어쓰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빛'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형태를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한다.

⑤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준말의 표기를 허용하고 있다.

02 ㉔, ㉕, ㉚, ㉛, ㉜, ㉝은 표준 발음이며 ㉘는 [계단]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㉙은 [비치], ㉚는 [널따], ㉛은 [말꼬], ㉜는 [깨뜨린], ㉝는 [거도슬], ㉞는 [바끄로], ㉟는 [더편], ㊱은 [목쓸이] 표준 발음이다.

03 홑받침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읽 위에서'의 정확한 발음을 제시했다.	
그렇게 발음해야 하는 근거를 알맞게 서술했다.	
주어진 글자수에 맞추어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했다.	

04 어간 말음 '리'은 'ㄱ' 앞에서 [리]로 발음하는데, '굽다'의 경우 '리' 뒤에 'ㄷ'으로 시작된 어미가 오므로 '굽다'는 [굴:따]가 아니라 [국:따]로 발음해야 한다.

05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면 받침을 제 소릿값으로 발음하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면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

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제시된 문장의 정확한 발음을 서술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06 받침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 '털어놓는'은 받침 'ㅎ' 뒤에 '-는'이 오므로 [털러논는]으로 발음한다.

07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로 발음하되 [ㄹ]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민주주이]로 발음한다. 조사 '의'는 [ㄴ]로 발음하되 [ㄹ]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ㄴ'은 [ㄹ]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한다.

08 조사 '의'는 [ㄴ]나 [ㄹ]로 발음하므로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ㄴ]나 [ㄹ]로 발음하므로 '논의의'는 [노년의/노년에/노년의/노니에]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ㄹ]로 발음하므로 '희미한'은 [희미한]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㉙ '의사가'와 ㉚ '예의를'은 각각 [의사기], [예의를/예이를]로 발음한다.

09 ①에서는 '얹'을 '안'으로, ②에서는 '담귀'를 '담가'로, ③에서는 '들어나게'를 '드러나게'로, ⑤에서는 '오랫만에'를 '오랜만에'로 고쳐야 한다.

10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어야 하는 용언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잠그다'도 '잠가, 잠갔다'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제35항에서 모음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갓'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도록 하고 있으므로 '되어요'를 줄여서 '돼요'라고 적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23항에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뎅이'는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ㄱ.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 '굽다'는 어간의 끝 'ㅅ'이 줄어질 적에 '그어, 그으니, 그었다'와 같이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ㄷ.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된다는 뜻으로 쓸 때에는 ‘낱다’가 아닌 ‘낫다’라고 표기해야 한다.



11 ‘붙다’의 사동사는 ‘붙이다’이고, ‘맞다’의 사동사는 ‘맞히다’이다. ‘-대’는 ‘-다고 해’의 준말이고,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틀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라는 뜻으로 쓸 때에는 ‘반듯이’라고 표기한다.

고난도 해결 전략 3회

100~103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시간과 장소(상황 맥락) 06 (가)~(다)의 상황 맥락(담화가 이루어진 장소)이 다르기 때문이다. 07 ① 08 ③ 09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한다. 10 ③ 11 ④ 12 ③

- 01 담화의 의미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 02 담화에서 적절한 접속 표현이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ㄷ). 의사소통 과정에서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은 발화이다(ㄹ).
- 03 제시된 담화는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과 남북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임진각’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①~③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담화의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 04 우리나라에서 “밥 한번 먹자.”는 인사말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터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진이의 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05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주면서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상황 맥락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시간과 장소, 의도나 목적 등이 있다. (가)와 (나)에서는 “뭐 하니?”라는 동일한 발화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06 동일한 발화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가)~(다)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라는 발화는 동일하지만, 발화가 제시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도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담화의 구성 요소 중 (가)~(다)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바르게 제시했다.	
완결된 한문장으로 서술했다.	

07 ①에서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가게의 영업시간이 10시가

지임을 알리는 것은,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때 영업이 곧 끝나니 식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아닌 상황 맥락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 08 정효의 발화에 ‘○○평생학습관’이 중복하여 등장하므로 두 번째 ‘○○평생학습관’을 지시 대명사인 ‘거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으로 정효의 말에 어울리지 않으며, 순접의 접속 표현인 ‘그리고’도 적절하지 않다. 소연이의 발화 중에서 정효의 옷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담화의 통일성을 해친다.
- 09 앞부분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에는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 표현을, 앞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이어질 때에는 ‘또한, 그리고’와 같은 순접의 접속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절한 지시 표현을 추가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수정했다.	
적절한 접속 표현을 추가하여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 10 ③에서는 학교에 가려다가 비 때문에 집에 돌아왔으므로, ‘엄마’는 “우산 쓰고 학교에 가야겠네.” 등의 비가 오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 11 <보기>는 205호에 사는 학생이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이다. 빈칸 앞에서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층간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④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 12 제시된 글은 다른 사람이 방귀를 끼었는데 자신이 편 것으로 오해받은 황당한 경험을 쓴 것이다. ㉠은 4층에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매장이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으로, 이 글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② ㉡는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을 반복하여 문장들의 긴밀한 연결을 방해하는 문장이므로, 지시 표현으로 바꾸어 담화를 간결하게 수정할 수 있다.

⑤ 통일성을 방해하는 문장은 ㉢뿐이다.

